
부산 국제영화제 10년, 과제와 전망

10 Years'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ask and Perspective

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Jin-Hae Kim(kajak2@ks.ac.kr)

요약

부산국제영화제(PIFF)는 2006년 제11회를 맞았으며, 영화제의 역사는 10년이 넘었다.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부터 3회 영화제까지는 시작단계였다. 제4회 대회부터 6회 대회는 안정단계, 7회부터 9회까지는 2차 발전단계를 거쳐 10회는 새로운 전환의 단계이다.

현재 부산국제영화제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동 조직위원회는 지역사회와 학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을 위해 이 논문은 몇 가지 결론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이 논문은 이를 바탕으로 영화제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중심어: | 부산국제영화제 | 부산 | 대학 | 협력 |

Abstract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PIFF) is 11th on 2006. Now the PIFF history is over 10 years. The 1st PIFF through 3rd PIFF is establishment period. The 4th PIFF through 6th PIFF is the stable status. The 7th PIFF through the 9th PIFF is the second development step and 10th PIFF is the another turning point of the one period. Now the PIFF is the researching the new path in the future.

PIFF is held in Pusan so that the Organizing Committee of PIFF is seeking for the help in this area and the colleges.

For the success of the PIFF, this thesis offers several conclus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doubt of the identity of the PIFF. This thesis is going to offers several suggestions for the successful film festival.

■ Key words: | PIFF | Pusan | College | Cooperation |

I. 서론

부산 국제영화제가 2006년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1996년 첫 출발한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열 돌이 지나 스무 돌로 향하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처음 출범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에

* 본 연구는 2007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70404-002

접수일자 : 2007년 04월 04일

심사완료일 : 2007년 05월 10일

교신저자 : 김진해, e-mail : kajak2@ks.ac.kr

대해 반신반의하였다. 당시 영화 관련 인사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국제영화제가 개최된다는 사실 그 자체를 미심쩍어하거나 설혹 개최된다 하더라도 2~3회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영화제의 나이로 보면 10년이라 세월은 어떤 면에서는 시작 단계 혹은 걸음마를 겨우 뎀 단계로 표현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의 역사가 모두 반세기 이상을 모두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기원은 19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칸 영화제는 1946년 출발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1985년 출발한 동경영화제가 그 시작이 우리보다는 10년 이상 빠르지만 영화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보다 동경영화제가 성공한 영화제라는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1977년 창설된 홍콩영화제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부산의 경우 이제 아시아권역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영화제라는 국내의 자체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출발한, 적어도 출발 당시에는 성공적인 영화제라는 평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동경과 홍콩 영화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부산 국제영화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추월하기 위한 동경과 홍콩, 그리고 상하이, 후쿠오카 영화제 등의 거센 추격과 도전을 따돌리고 아시아권의 최고 권위의 영화제로 또는 세계영화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의 역사가 그 앞날을 가능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물들이 주로 부산 국제영화제의 성공요인 분석 및 효율성 분석 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지역경제와 생산성 향상, 고용확대 및 관광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산시의 이미지 제고에 영화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역할을 검토하는 연구들이었다. 이 논문은 이 같은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 최초 유료 관객 수가 지난 10회 영화제에서 사상 최고인 19만 3천여 명에서 16만 여명으로 줄어든 것을 신호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조직위원회 자체의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향후 10년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생각해 보는 연구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부산국제영화제 개요 및 성공요인 분석

부산국제영화제의 출발은 이렇하였다. 1994년 11월21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부산영화평론가협회주최로 '2002년 아시안 게임 개최를 앞둔 부산영화문화의 진흥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부산지역의 영화계 인사와 정계, 재계 인사들 사이에 영화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영화제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촉발되었다[1]. 1996년 1월 17일 부산시 오세민 정무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설명회를 개최했던 준비 팀은 이날 아시아 영화중심의 '비경쟁 영화제'라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기본 성격을 확정하고, 법인기구 구성, 추진계획 및 일정, 그리고 소요예산 등에 합의하였다. 이후 1996년 2월13일 문정수 부산시장을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의 창립총회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는 그 출범을 알리게 되었다[1].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영화를 집중 조명한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아시아의 신작영화를 소개하는 '아시아 영화의 창', 아시아 지역 이외의 신작영화를 소개하는 '월드 시네마', 주목할 만한 그 해의 한국영화를 소개하는 '와이드 앵글'이 기본 색션이었다. 아시아 신인 감독의 신작 영화를 소개하는 유일한 경쟁부문의 이름을 '새로운 물결'로 정하고, 아시아 영화의 미래를 '새로운 물결'로 부각시키고, 지나온 영화의 전통과 특별한 영화제의 이슈를 묶는 회고전과 특별전이 사이드 색션으로 곁들여졌다[1].

지금까지 국내에서 국제란 명칭을 걸고 출발한 영화제들이 시작한 영화 관계인의 소원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진행 과정상 조직 구성 및 업무 추진 형태를 볼 때 관 주도의 행사로 그 공이 넘어간 경우를 여러 곳에서 보아 왔다. 그런 면에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김홍준은 '바람직한 영화제의 운영방향과 그 문제점'이란 심포지엄 발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부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마스트플랜에 의하여 인력 양성, 지명도 고양, 인프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성취

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1회부터 모든 것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태도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자리 잡은 영화제 관계자들에게 질문해보면 영화제가 현재의 수준에 이르는데 보통 5년이 걸렸으며, 출범 당시부터 5년 후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영화제를 차근차근 키워왔다는 대답이 일반적이다.[2]

이 같은 김홍준의 말에 빗대어 볼 때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제1회 부산 국제영화제는 총예산 26억 8천만 원 중 부산시 지원 3억 원, 기업협찬금 12억 2천만 원, 기타 6억 8천만 원, 대표수입 4억 8천만 원이었다. 5년 후 2000년에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는 예산 33억 3천만 원 중 부산시 지원 5억 원, 기업 협찬금 12억 원, 대표수입은 6억 3천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 10억 원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여기서 잠시 부산국제영화제의 현황을 요약해보자.

아래 [표 1]을 통해 살펴볼 때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이미 출발부터 그 계획이 충실하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관객동원의 측면에서 1회 당시 18만 4천명이

란 기록적인 숫자를 과시했으며, 5회 역시 18만 1천명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즉 관객 수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관객 수는 오히려 약간 줄어들었으나 수입 면에서는 1억 5천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수치를 볼 때 적어도 부산 국제영화제는 다른 영화제와는 달리 김홍준이 진단한 조급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즉, 시간적으로는 짧았을 런지는 몰라도 부산국제영화제 준비 팀은 자발성인 순수함을 무기로 부산시와 부산 거점의 지방 중소기업체 및 일부 대기업의 후원 속에 그 첫 출발 부터가 외형적으로는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부산국제영화제는 제1회, 제2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3회 부터는 적지 않은 국고를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공적인 신뢰도를 2~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었다고 본다.

국내의 언론 및 일부 연구를 통해 외형상 성공적이라 영화제로 평가받고 있는 부산 국제영화제의 김동호 집행위원장은 내부적 분석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표 1. 역대 부산국제영화제 개최현황

구분	개최기간	상영작품	초청인사	관객동원	소요경비
제1회('96)	'96.9.13 ~9.21	27개국 170편	27개국 224명	184,071명	22.0억 원
제2회('97)	'97.10.10 ~10.18	33개국 163편	30개국 450명	170,206명	24.5억 원
제3회('98)	'98.9.24 ~10.01	41개국 211편	25개국 659명	192,547명	25.0억 원
제4회('99)	'99.10.14 ~10.23	53개국 207편	36개국 555명	180,914명	26.5억 원
제5회('00)	'00.10.06 ~10.14	55개국 207편	39개국 3017명	181,789명	27.0억 원
제6회('01)	'01.11.09 ~11.17	60개국 201편	30개국 3761명	143,103명	29.5억 원
제7회('02)	'02.11.14~ 11.23	57개국 226편	35개국 5318명	167,349명	32.5억 원
제8회('03)	'03.10.02 ~10.12	61개국 243편	50개국 5329명	165,103명	37.0억 원
제9회('04)	'04.10.7 ~10.15	66개국 263편	50개국 5638명	166,164명	39.5억 원
제10회('05)	'05.10.06 ~10.14	73개국 307편	55개국 6088명	192,970명	54.5억 원
제11회('06)	'06.10.12 ~10.20	63개국 245편	51국 8321명	162,835명	74.2억 원 (마켓 20억 포함)

자료: 역대 부산 국제영화제 연도별 결과보고서

1. 아이덴티티의 성공, 즉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영화를 지향하는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2. 자율성의 보장, 즉 부산시측이 행정적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점이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업무 추진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3. 부산영상위원회의 설립으로 부산이 명실 공히 촬영의 도시로 거듭 탄생했다는 점이다. 또한 촬영 스튜디오 설립과 함께 시네마테크의 설립으로 영화시민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4. 1996년 당시 경성대학교 하나에 불과하던 영화교육기관이 2007년 현재 6개로 늘어났다는데 있다. 또한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25%에서 50%로 꺾충 뛰었다는 것이다.
5. 한국영화의 해외수출이 급성장을 했다는 점이다. 1997년 40만 불에 불과했던 실적이 98년도에는 300만 불, 99년도에는 700만 불, 2005년도에는 6,700만 불로 10년 사이 무려 20배의 성장을 했다는 사실이다.
6. 한국영화감독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이다. 1984년 이두용 감독이 '몰레야 몰레야'로 칸을 노크한 이후 1989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1996년 '유리' 이후 임권택 감독의 수상과 박찬욱 감독의 수상으로 한국영화의 실력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7. 부산영상센터의 건립추진이다. 468억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제 1267억의 프로젝트로 성장해 있다는 사실이며, 현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다.
8.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의 20012년 이전을 앞둔으로서 부산이 영상도시로서의 확실한 면모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9. 현재 추진 중인 후반 작업시설의 완성은 부산이 제작의 도시로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부산 국제영화제는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제일의 영화제로 급성장 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국내에서 국

제적 규모의 영화제는 부산을 비롯하여, 전주, 광주, 부산 및 여성영화제, 서울 넷&필름 페스티벌 등 국고 지원을 받는 영화제만 총 6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6개 국제영화제에 대해 평가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가 단연 1위의 영화제로 현재 자리매김 되고 있다[3]. 국제영화제를 평가한 또 다른 연구논문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꼭 필요한 영화제이다"라는 평가의 평균에서 '매우 그렇다'에 가까웠으며, '주제가 독창적이며 성격이 뚜렷하다'만 '약간 그렇다'에 가까운 3.76로 나왔으며, 나머지 프로그램의 구성이 다양하고 질이 높다(4.20), 새로운 작품과 신인감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4.13). 행사내용 무명 일정 등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된다(4.63). 홈페이지가 잘 구축되어 있다(4.12), 영화인 상호간, 영화인과 관객 간의 만남의 기회가 잘 제공된다(4.41).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된다(4.10).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4.53), 우리나라 영화발전에 기여한다(4.59).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4.53). 꼭 필요한 영화제이다(4.69) 등이다[3]. 이상과 같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인정한다면, "주제가 독창적이고 성격이 뚜렷하다"(3.76)는 부분에서 최하의 점수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이제 우리는 영화제의 성격과 정체성에 대한 검토와 향후 방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부산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검토

2.1 태동기의 부산국제영화제

1996년 제1회 영화제를 시작으로 부산국제영화제는 1999년 제3회 영화제 까지가 모색과 탐색의 시간으로 보인다.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살펴보면 동 영화제가 색깔로 내세우는 '아시아영화의 창'의 경우 10개국 총 18편의 영화가 초청되었으나, 관객들의 호응도 면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월드 프리미어도 한 편도 없는 현실이었다. 한편 월드 시네마 부분의 상영작 16편은 <울리시즈의 시선>, <제8요일>처럼 칸 영화제에서 이미 공개된 작품이 반 이상이어서 '칸 영화제 재탕'이란 비난의 소리가 섞여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직위원회 측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월드 시네

마 섹션의 목적은 두 가지 이었다. 수준 높은 영화제 상영작을 통해 수준 높은 관람문화를 정착 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홍행'이었다. 이미 입소문난 영화들을 간판으로 내세워 관객을 불러 모은 뒤,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 영화나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만 했다.[3]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살펴보자. 1997년 막을 올린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회보다 출품 편수에서는 약간 밀렸으나, 2배에 이르는 초청인사의 급증 외에 소위 스타급 인사를 동원한 영화제였다. 동 영화제에서는 세계적인 감독의 반열에 오른 이란의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과 일본의 키타노 다케시 감독 등의 핸드프린팅 행사 참석 뿐 아니라 웨인 왕, 리들리 스코트, 왕가위 감독 등의 작품이 출품되면서 대중들의 관심과 기대감을 충족하는데 성공했다. 2회 영화제의 프로그래밍 역시 스타와 유명감독을 내세워 분위기 몰이와 홍행에는 성공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역시 아시아 영화의 새로운 물결에서는 홍콩의 프룻 쉐 감독의 <메이드 인 홍콩> 정도만이 대중과 평단의 관심을 끌었을 뿐이다. 아울러 조직위원회 측은 '새로운 물결' 수상작에 대해서는 한국 내 배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1만 불의 상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1만 불의 상금이 과연 상업영화로서의 배급에 어느 만큼의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전국 개봉에 최하 1억 원 이상이 드는 현실에서 그 상금은 상징적인 의미로 밖에는 작용하지 않는 느낌이다.

제3회 영화제는 제2회 영화제의 대중적인 성공에 힘입어 부산시의 지원이 3억 원에서 2억 원이 더 증액되어 5억 원이 되었으며, 국고도 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확실한 지지를 확보한 영화제였다. 역시 1999년 일본대중문화개방을 앞둔 시기에 일본영화는 당연 화제의 도마에 올랐으며, 그중 이와이 순지 감독과 <자살관광버스>의 시미즈 히로시 감독 등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차이밍량 감독의 <구명>이 소개되고 허우샤오시엔의 <상하이의 꽃>등도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적어도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얻은 가시적 성과는 일본, 중국, 홍콩 뿐 만이 아니라 영화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영화선'을 별도로 마련함과 동시에

'프랑스 영화의 밤'을 개최하는 등 부산국제영화제가 해외 우수 영화강국의 홍보전시장이 된 점도 그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표인 셈이다.

영화제의 정체성이란 영화제의 성격이며,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영화 중심의 비경쟁영화제'를 표방하였다.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총 169편의 영화 중 '아시아 영화의 창'에 상영된 작품은 고작 18편에 불과하였고, 2회, 3회 영화제 역시 아시아 영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한다기 보다는 스타 초청과 핸드프린팅 등의 이벤트, 유명 배우와 감독들의 야외무대 인사 및 관객과의 대화 등 외적인 바람몰이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태동기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요인은 프로그래밍에 있었다기 보다 관객동원을 위한 전시성 행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영화제 본래의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미흡했다고 보인다.

2.2 발아기의 부산국제영화제

1999년 제4회 부터 제6회까지의 부산국제영화제는 초청국수가 50여 개 국, 초청인사 500여명, 예산 25억 원~30억 원을 밑도는 평균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4회 부산국제영화제는 그가 내세우는 심장인 '새로운 물결' 부문에서 12편의 작품을 선보이며 예매율 80%, 이중 대부분이 아시아 프리미어로 상영되었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의 모토인 아시아 영화의 창에서 소개되는 대부분의 영화들은 한국 관객들의 사랑을 받기에는 매우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들 영화의 예술적 완성도와 작품성을 떠나 대중의 기호를 만족시키기에는 실패했으며, 아울러 한국 내에서 배급의 기회를 당연히 상실하게 된 것이다. 비단 영화제 상영작에 국한 된 문제는 아니지만 영화제 수상작들은 대부분이 홍행에서 실패하는 징크스도 낳게 된 것이다. 한국 영화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매진 기록을 세운 많은 영화들이 막상 향후 개봉관에서의 홍행성고가 저조한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제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소개되었던 한국영화 <박하사탕>이 세계영화계에서 호평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 한국영화사

상 최초로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오르는 등 세계영화계에 한국영화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찾아온 것이다. 비단 이 같은 결과는 한국 감독들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신장된 측면과 아울러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한 국제교류에 힘입은 바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제5회 부산 국제영화제의 또 하나의 기획은 바로 디지털 영화를 점검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편 것이다. 디지털 기자재 전시회 및 세미나의 개최와 임상수 감독의 <눈물> 등 본격적인 디지털 영화의 소개가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제3회를 맞은 PPP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한국영화의 수출 통로 개척이 가시적인 성과였다.

2001년 제6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였다. 우선 상영관 리모델링 작업으로 좌석수가 4만 여석 줄어들었으며, 덩달아 관람객 수 역시 역대최저인 14만 3천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면에서는 이와이 순지 감독의 <릴리 슈슈의 모든 것>, 프룻첸 감독의 <할리우드 홍콩>, 모호센 마흐말바프 감독의 <카다하르>, 차이밍량 감독의 <거기는 지금 몇 시니?> 등의 작품이 참가 의사를 밝힘으로써 아시아 영화 수급은 안정권에 든 듯이 보였다[3].

4회부터 6회까지의 부산 국제영화제는 제1회 부터 3회까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별 어려움 없이 내적인 성장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영화의 프로그래밍보다는 한국영화를 영화제에 전면 배치함으로써 집안 잔치를 한다는 일부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결국 1회부터 6회까지를 중간 점검해 볼 때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영화와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래밍이었으며, 월드 시네마 섹션 등은 구색 맞추기 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영화가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현실에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시 한 번 아시아 영화를 중심으로 포매팅을 해야 한다는 본래의 과제와 영화제의 흥행 사이를 고민하는 딜레마를 맞이하였다.

2.3 성장기의 부산국제영화제

2002년 부산국제영화제는 제7회를 맞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제7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뉴커런츠상에

<질투는 나의 힘>의 박찬욱 감독을 시작으로, 운파편드, 선재편드를 비롯해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에 <죽어도 좋아>의 박진표 감독 수상, 넷팩상 까지 모두 한국 영화가 싹쓸이 하는 이변을 나았다. 한국영화의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된 것이 분명한 한편 안방잔치로 전략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기우도 낳게 만들었다. 아울러 특기할 만 한 점은 처음으로 월드 시네마 부문에 '비평가 주간'이 신설되어 한국의 김영진, 이명희 등 5인의 평론가들이 발견한 10편의 영화가 영화제를 장식했다. 이 점은 이제까지 프로그래머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던 영화의 선구안의 폭이 넓어졌다는 사실이며, 한 프로그래머의 편향적일 수 있는 시각에서 벗어나 평론가들이 주축이 된 보다 예리한 안목으로 세계의 영화를 선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영화제는 'WTO 다자간 협상테이블'을 앞두고 자국문화시장 개방에 반연대활동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프랑스의 날'이 마련되었고 문화협력약정 체결식도 거행되었다[3]. 이처럼 영화제는 이제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데서 벗어나 문화운동을 지원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특색은 아시아 영화 섹션의 경우 '중국독립영화특별전'과 '아프가니스탄 영화특별전' 등의 뜻 깊은 행사가 있었으며, 월드 시네마 섹션의 경우 '캐나다영화 특별전'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비평가주간'은 '크리틱스 초이스'로 이름을 바꾸고 더욱 독립적인 섹션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기에 이르렀다. 또한 북한영화의 공식상영은 부산국제영화제만이 추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사였다.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왕가위 감독의 <2046>을 개막작으로 40편의 월드 프리미어, 16편의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를 유치함으로써 탄탄한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대만의 세계적인 감독 허우 샤우시엔과 그리스의 테오 앙겔로풀로스 감독을 초청,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영화학도들에게 선망과 설렘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마스터 클래스의 의미는 영화철학자의 영화관과 인생관을 젊은 학도들에게 육성으로 들려주는 자리로서, 향후 감독을 지망하는 많은

영화학도들에게는 생생한 산교육의 현장인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 국제영화제는 단순히 영화의 페스티벌만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영화교육의 기능도 수행한 측면이 있다. 서서히 성숙해진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도 아시아영화에 있어서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권 영화강국의 영화는 물론 태국, 인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영화 열세 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여, 그들 나라의 영화를 특별한 형식으로 혹은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 영화 변방 국가들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직 그 작품의 의미나 각국 영화의 영화제작 환경 및 산업구조, 그것을 잉태한 작가의 주변 환경까지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연구의 장을 제공하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그것들을 소화해내려는 노력들은 아주 소중해 보인다.

한편 월드시네마 부문에서도 유럽과 미주 외에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영화를 소개함으로써 부산은 세계영화제의 여러 조건을 갖추려는 노력을 부단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영화제를 기회로 부산영상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조직되었을 뿐 아니라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아시아영상위원회 네트워크'가 결성되었으며, 부산영상센터건립 등 영상산업시설 조성을 위한 '시네포트' 플랜이 부산 국제영화제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렇게 볼 때 부산국제영화제는 단순히 영화페스티벌의 형식을 넘어선 실질적인 영화산업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는 촉매역할과 한국영화회고전 등 학술세미나와 연계한 영화학의 범주 확대 등의 간접적인 공과도 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같은 시도들이 부산영화제가 프로그래밍보다는 전시성 행사에 치중한다는 일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조직위원회는 부산의 영상산업 발전 또는 한국영화 발전이라는 또 다른 책임감으로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 10년의 정점,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

2005년 부산국제영화제는 아홉 번째 축제를 마치고 제10회 페스티벌의 길로 들어섰다.

1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규모면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다. 10회 부산 국제영화제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의 특별함 보다는 오히려 10주년 기념이라는 스페셜 이벤트와 기념사업 및 기념행사 등이 많은 영화제였다. 스페셜 이벤트의 경우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가 '나의 인생과 나의 영화'란 제목으로 열렸으며, 10주년 기념 출판사업과 <아시아 영화산업 네트워크>, <경계와 탈 경계 속의 한국영화>, <전 지구적 프레임에서 본 한국영화> 등의 학술행사가 자리를 잡았다. 아울러 영상센터 부지 건립 기념식이 열림으로써 숙원사업인 부산 국제영화제 전용관 확보 및 시네마테크 등 부대시설을 위한 첫 삽을 떤 것이다. 동국대학교 정재형 교수는 "국제영화제는 영화정보를 교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4]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부산 국제영화제의 10년의 결산은 적어도 아시아 영화권의 많은 영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일반 관객들이 시중의 상영관 등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변방의 영화들을 영화제가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그것은 비단 아시아 영화 뿐 만이 아니라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 등 지역별, 장르별로 영화의 다양한 메뉴를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꾸준히 아시아 영화의 가치 정립과 다양한 스펙트럼의 영화를 부산 국제영화제를 통해 전세계로 전파하려 한 조직위원회의 당초 계획은 일단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분적이라 함은 아직 한, 중, 일 등 3개국을 제외한 산업적으로 영화가 자리 잡지 못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영화가 단순히 부산 국제영화제를 통해 상영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화제는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 역시 관련 연구논문 등의 분석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225억 2천만 원, 고용유발효과 1천 687명을 창출[5]한 것으로 나오는 등 경제효과 분석 상 성공 사례로 나와 있음을 물론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성격상 프로그래밍 뿐 만이 아니라 국내외 스타급 배우 및 감독들을 초청하고 핸드프린팅 행사를 가지는 한편 야외 오픈 토크 등 관객에게 다가가려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역민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시네마테크의 설립을 통한 자료의 보관과 기획전시상영 및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용관 확보를 위한 부산영상센터건립 부지 및 초기 예산 확보, 그리고 후반작업시설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부산영상위원회의 설립과 부산촬영스튜디오 건립 등 부대적인 많은 사업에 초석을 마련한 지대한 공로가 있다.

10년 역사의 부산 국제영화제를 조명해 볼 때 그는 프로그래밍을 포함해서 부산의 영상산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부대적인 효과를 창출한 것이다. 어쩌면 부산 시민들은 축제 혹은 소비의 형태로서의 영화제 보다 그를 통한 산업구축 및 일자리 확보,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 및 관광 효과와 부산의 이미지 고양에 부산국제영화제가 기여한 바가 훨씬 크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고 후한 점수를 주는지도 모를 일이다. 영화제는 미학적 측면에서 영화정보 교류의 측면 의 영화시장 즉 마켓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는 영화의 산업적 토대 구축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영화제가 함께 병행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칸 및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가 그러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 아메리칸 필름마켓 AFM이 해변 휴양지 산타모니카에서 매년 열려 전 세계의 영화관계자들이 영화를 스크리닝 하고 구매와 판매 등의 상거래를 하고 있다.

2006년 제11회를 맞이한 국제영화제는 드디어 새로운 행보를 단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산국제 필름커미션과 영화산업박람회(BIFCOM)이다. 이 행사는 아시아지역 로케이션 비즈니스의 정보 제공 뿐 만이 아니라 최신장비와 제작 신기술을 선보인 자리로서, 디지털 시네마토그래픽 카메라와 디지털 시네마 프로세스의 핵심 기술을 가진 업체들의 선전과 홍보와 지식 전달의 장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영화를 사고파는 시장의 기능을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다. 이것은 부산 국제영화제측이 보다 성숙된 영화제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다음 행보로 보인다. 결국 부산국제영화제는 국제영화제로서 갖추어야 한 정보교류의 기능, 지역사회 활성화의 기능, 영화시장의 기능 이 모두를 구비하려는 시점에서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와 부산국제영화제 본래의 성격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미 부천이나 전주, 광주 등 각 지방도시를 비롯하여 여성영화제, 넷팩영화제, 고양어린이영화제를

위시하여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영화제의 홍수 속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당초 설정하였던 방향성, 즉 정체성의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부산 국제영화제의 새로운 과제는 정체성의 확립이다. 정체성이란 고유의 색깔이다. 외형상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의 브랜드 영화제로서 뿐 만이 아니라 종합 국제영화제로서 가져야 할 모든 기능과 조건을 충족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 스스로가 내세운 정체성은 '아시아중심의 비경쟁영화제'였다. 10년을 넘긴 부산 국제영화제는 이제 스스로가 정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자문해야 할 것이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더 큰 성장을 하려면 진정한 의미에서 영화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정체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만이 영화제의 정체성은 확립된다. 따라서 조직위원회는 프로그래밍의 변신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래머의 수혈과 외부 비평 그룹의 영입을 통해 정체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영화제는 새롭게 변해야 한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성장에 따라 부산지역민들의 영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심도 변화였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지역 산업의 경제유발 효과 뿐 만이 아니라 지역대학의 영화학과 창설에 간접적인 기여도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영화제와 대학의 아카데미즘도 이제 상생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가시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가 부산지역 영화전공 교수들이 제안하는 정책 및 영화제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제도의 구축이다. 영화전공교수들이 중심이 된 영화연구소를 기반으로 영화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 국제행사와 학술세미나를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영화제의 출품작 및 상영작에 대한 영화미학과 영화사적 평가를 아카데미즘에 기반을 두어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래밍에 있어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부산영화제의 프로그래머들의 자질은 훌륭했으며, 열성적이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 속에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인적 네트워크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따라서 “칸 영화제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필름을 공급하는 내부 프로그래머들이 있지만, 평론가들의 외부 조직체에 일부 섹션(15인의 감독전, 주목할 만한 시선 등)을 운영케 한다.[4]”는 해외 우수영화제의 사례에서 보듯이 월드 섹션을 포함, 아시아 영화섹션과 한국 영화 섹션을 포함하여, 조직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전공 교수 및 평론가, 학자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길은 향후 부산국제영화제가 자기의 고유성을 확보하면서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영화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며 생명이다. 셋째, 부산 국제영화제가 부대행사로 학회나 대학과 연대하여 영화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학술 세미나는 특히 조직위원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학회나 연구소 및 학술단체의 협조 속에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영화제의 내적 밀도 확장 뿐 만이 아니라 영화학 연구의 큰 거름이 될 것이다. 넷째, 아울러 고급 담론의 생산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부산시 및 관계기관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 고급담론이란 영화 발전 및 영화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는 특히 인문학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의 영화학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각의 영화사 및 영화학 연구이다. 다섯째, 필름 아카이브의 정착이다. 이는 현 부산 시네마테크의 자료수집 기능과 기획전시상영의 활성화 및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영화읽기 훈련에 중점을 둔 교양 교육을 포함해서 문화다양성 차원에서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6]. 여섯째,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많은 영화들, 특히 아시아권 영화들을 위한 지속적인 상영 기회와 배급의 활로 개척이다. 그 가시적인 움직임이 서울의 중앙미디어 그룹과의 PIFF 채널의 개국이다. 만일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월드 프리미어급 영화들이 한국 시장에서 배급의 기회와 상영의 기회가 상설적으로 주어진다면 더 많은 전 세계의 우수한 감독들의 작품이 출품될 것이며, 이는 영화제의 질적 향상 뿐 만이 아니라 영화사상 새로운 뉴 웨이브의 물결을 부산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삽을 뜬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는 아시아권 젊은 영화인들의 재교육을 부산영화제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다는 말이며, 이는 명실공히 아시아권역에서는 적어도 한국을 넘볼 국가가 없는 확실한 형태의 영화 인적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이 역시 조직위원회 자체가 해결한 숙제라기보다는 부산지역의 대학 및 현장 인력들이 구심점이 되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일 것이다. 부산 국제영화제는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반성과 성찰의 시점에 와 있다고 보이며, 그 노력 여하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의 향후 10년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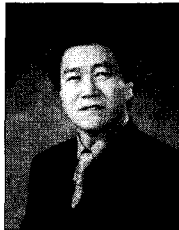
- [1]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10년사*, 제10회부산국제영화제, pp.11-14, 2005.
- [2] 김홍준, *바람직한 영화제의 운영방안과 그 문제점*, 2003.
- [3] 박조원, *국제영화제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4] 정재형, *국제영화제의 성격과 필요조건*, 2003.
- [5] 임정덕, 백충기,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요인과 효율성 분석*, (재)효원학술문화재단, 2005.
- [6] 남인영,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본 한국영화 아카이빙의 현안*, *영화연구* 29호, 2006(8).
- [7] 김도학, *국제영화제 평가시스템 개발 및 2005 국제영화제 평가*, 영화진흥위원회, 2005.
- [8]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3.
- [9] 이혜영, *국제영화제의 문화적, 산업적 영향연구-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0] 신용호,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요인과 효과분석*, *도시문제* 363호, 1999.
- [11] 손상기, *부산국제영화제 발전전략과 산업적가치의 활용을 위한 외연확대의 방향*, 부산발전연구원, 2005(10).

- [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클러스터지형도에 기초한 부산시 문화산업*, 2006(9).
- [13] 금성권, 정승진, 원희연, *멀티미디어시대의 부산 영상산업 육성방안*, 부산발전연구원, 1998(2).
- [14]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과와 과제*, 부산발전연구원, 2000(11).
- [15] 박중호, *부산영화산업진흥의 가능성과 과제*, 부산발전연구원, 2000(11).
- [16] 김동호, *부산지역 영상분야 공동발전 워크숍 자료집*, 2006.
- [17] 안상협, *부산 디지털 영상산업의 발전전략*, 2004.

저자 소개

김진해(Jin-Hae Kim)

정회원



- 1981년 2월 : 연세대학교 (문학사)
- 1984년 8월 : 뉴욕테크대학원 (영화영상학석사)
- 1997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

<관심분야> : 영화제작, 영화이론, 디지털영상